





二年間敎諭를 맡고 東萊女子青年會々長으로被任되야 女性運動을爲하야 三年間活動하다가 植友會를發起하야 中心人物의 한사람으로 二年間에 非常한活躍을 하얏다 女史는 卽만한人格 卽만한學識 卽만한活動 卽만한優越로 보아 當時東萊士女의 輻濟하는 寵愛는 卽其身에 集中되엇다 한다

사람의運命을 한결 같지 못하얏다 그의親父가 卽世한後로 屬母待下에 있으면서 그夫君의 學費와 生活費를 提供한나마에 그夫君은 二年間이나 病魔에 苦게 되야서 家計는 漸々 衰頹하게 되얏음으로 다시 生活費를 負擔하야 蕪業을 經營하야 보았으나 그의 所長의 안이니만치 失敗에 들어갓다 모든 點으로 苦海의 呑맛은 幸福者이든 그에게도 침노하기 시작하얏다 그리하야 그는 多少의 苦惱를 受키게 되얏다 그는 그의 父親의 耶蘇敎의 眞信者인고로 無論어려서 卽 耶蘇敎를 믿엇었다 그러나 耶蘇敎의 信仰으로 到底 그의 苦惱를 除去할 수 없었음으로 今年에 上京하야 人生問題 特別苦海를 超脫

하기爲하야 佛敎信者가 되야서 參禪을 힘쓰고 佛育女團의 幹部로 明星學校의 庶務部長으로 活躍中이라 한다 不幸히 今春에 病魔에 侵弱을 受키 苦惱로 苦게 됨으로 그는 二男二女를 다리고 輪々한 生活를 하게 되얏다 한다 그는 趣味에 있어서 文學를 좋아하하고 山水를 좋아한다 한다 그가 今夏에 一人의 同伴과 같이 金剛山에 갔을때에 어느 知舊에게 面會한中의 一節「先生님 무엇보다 最良은 青山에서 遊步하는 時分에 白石의 사리로 眞球가 捲어 지는 것 같음이다 銀髮로 染여오는 老人가 여기서 發見되고 變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나 무엇을 시초라 하고 싶은 마음이나 시초를 가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나 그의 趣味即文學의 造詣와 山水를 좋아하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그는 女性運動에 盡力하갓다 하며 獨身生活를 繼續하갓다 한다 그리나 사람의 將來는 極端으로 斷斷할 수 없다는 暗示를 주는 듯하갓다 運命의 神이여 그를 幸福으로

金光浩女史 (三〇)

佛育女團事務室에 들어가면 키가 조금 크므로 되었으나 귀인칭스럽게 보이는 女性인 한 분계시다 그는 活潑하고 交際的이며 手腳家當이 보기며 指摘하기 어렵은 非科學的의 愛嬌가 甚은다 그는 달은



金光浩氏

사람이 안이라 佛育女團의 文敎部長 眞象 明星學校院長의 雙兵符를 卽 三十壯年의 金光浩氏다 그는 京城 出生인 卽 貧寒한 家庭에 出어갓다 한다 十三歲에 於義洞 普通學校를 卒業하갓고 京城 女高에서 修學하갓다 十五歲에 父母의 命令으로 結婚하게 되야 卽 道에 退學하갓다 結婚하고 夫君을 卽 日本에 가시 約三年間 同居

하는 동안에 流動的으로 修學한 일은 있으나 卒業한 일은 없다 한다 己未 運動의 衝動을 받고 天龍國하야 夜學幼稚園 曹校에서 敎諭를 맡은 일이 있고 梵魚寺에 分入敎하갓다 二十歲時에 佛敎女子青年會를 組織하여 努力하갓고 繼續活動하갓다 二十三歲에 다시 東京에 가시 和洋裁縫女子專門學校를 卒業하갓고 歸國하야 向上女子技藝學校의 敎諭를 맡은 일이 있고 無產婦人을 爲하야 洋裁工場을 設立한 일이 있었고 文化裁縫女學校의 經營에 努力한 일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大部分 失敗에 들어갓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性朋友會로 불려 植友會까지 會員이 되어서 女性運動에도 만한 心力을 費하갓다 그렇다가 다시 女子實業의 必要를 覺悟하갓고 佛育女團 佛敎事務院의 도움으로 同志 및 사 랑과 같이 明星女子實業學院을 設立하갓고 院長의 任에 當하야 若々 進行中이요 佛育女團의 幹部가 되야서 多方面으로 活動하는 中이라 한다 그는 親父母 兩位와 兄弟는 子女二人으로 더불어 昭格洞에 居住하는 때 生活費는 日本

에서 問題를 解決하기爲하야 活動하고 있는 그의 夫君은 卽 불려 말라다 말라다 어진 것이 보내준다 한다 얼마나 有福한 生活이나 그는 卽다금 친한 동무들의 勸誘하야 自己의 夫君이 보고 싶으갓다 그 情을 하소연한다 同情할 만 한 일이다 그는 技藝와 裁縫의 趣味를 찾이고 郊外 散步도 第二의 趣味를 된다 한다

崔順子嬢 (三一)

崔嬢은 動作과 스타일의 모든 點으로 보아서 美滿한 처녀의 特色이 없지는 百퍼 想의 雅麗한 一모던 式美人이다 型에 있어서 만 그리 할 만 안이라 內的存在도 또한 그러하갓다 清楚한 神經質에 趣味는 文藝 特別히 그중에도 抒情詩를 좋아하갓고 항상 都賀를 讚美한다

崔嬢은 六歲에 漢文을 배우다가 金泉齊校를 卒業하갓고 이어서 京城 崔明女高를 卒業하갓고 十七歲에 日本에 가시 東京 實踐女子專門學校에서 四年間 文學를 專攻하

갓다 今春에 歸國하야 佛育女團에 投身하야 理財部長의 椅子를 占領하갓고 明星女子實業學院의 敎諭를 맡게 되얏다 한다

그의 出生地는 慶北 金泉郡 邑內요 家庭은 商業으로 富饒하야 生活에는 아무도 自由가 없고 지금은 桂洞에 居住하는 때



崔順子嬢

그 父母가 佛敎信者인 것으로 어려서부터 自然히 佛敎를 믿게 되얏다 曠은 某大學生과 約婚을 하갓다 한다 그리하야 그의 理想은 幸福은 理想에 實現으로 步步 進行하는 道中에 있갓다 한다 刻一刻 樂園으로 向하야 가는 幸福의 旅行者인 曠에 對하야 萬歲!